

**어법 기출문제 연습**  
-수능, 모의수능, 교육청 학력평가

**[수능 기출문제]**

※ 아래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지요. 무슨 일이었는지 제가 선생님 책상을 기웃거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잉크병을 넘어뜨렸는데, 뚜껑이 열려 있어서 책상을 홍건이 적시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였다면 별로 큰일이 아니었겠지요. 마침 책상 위에는 하얀 종이가 펼쳐져 있었고, 까만 잉크가 하얀 종이를 마치 세계 지도처럼 물들였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 그저 서 있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잠시 뒤 선생님께서 오셨고,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어떤 버락이 내릴지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선생님께서는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제 어깨를 툭 치시고는 “괜찮다.” 한 마디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선생님께서는 교무 부장이셨지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건 감사의 눈물이었고, 그 후로 저는 선생님을 더욱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1. 다음 중,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1999학년도 11번)
- ① 홍건이                      ② 그것만이였다면                      ③ 큰일  
④ 한참 동안                      ⑤ 괜찮다

※ 아래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나라 사람들은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만 빨리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과정을 소홀히 하고 결과만을 빨리 얻으려는 이러한 결과 우선의 사고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기초 과학 분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날의 발전하는 첨단 기술이라는 열매를 어떻게 하면 빨리 딸 수 있을는지 만 생각했지, 그 열매가 어떤 기후에서, 어떤 자양으로,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외면해 왔다. 그럴수록 과학 기술의 결과 우선 주의가 공헌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기초 과학 분야를 도외시한 채 당장 써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응용 과학 분야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같은 것이다.

2.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2000학년도 12번)
- ① 어쨌든                      ② 소홀히                      ③ 나날이  
④ 있을는지만                      ⑤ 채

※ 아래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철수는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하였다. 철수는 먹다 남은 ㉡찌꺼기와 ㉢온갖 반찬 찌꺼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였다. 그 때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든 어머니께서 놀라며 말씀을 하셨다. “애, 안 돼. 분리 수거를 해야지.”

3. 맞춤법에 맞는 것은? (2001학년도 11번)
-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4. 제시된 낱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잘못 해결한 것은? (2003학년도 10번)
- ① 다리다: 약은 정성껏 다려야 한다.  
달이다: 내일 입을 옷을 달이고 있었어.
- ② 안치다: 이제 밥만 안치면 되겠구나.  
앉히다: 아이들을 어디에 앉히면 좋겠니?
- ③ 엉기다: 그릇에 기름이 엉기어 있군.  
엉키다: 여행 계획이 엉키어 버렸군.
- ④ 이따가: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가 만나자.  
있다가: 조금만 누워 있다가 일어나마.

- ⑤ 저리다: 다리가 저러서 걷기가 힘들구나.  
절이다: 배추를 절이는 방법을 배웠어.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5. 혼동하기 쉬운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한 예로 잘못된 것은? (2005학년도 14번)

- 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급방 갈게.  
요즘에는 방급 전에 읽는 것도 자주 잊어버려.
- ② 매물뿔던 광부를 열흘 만에 구조했다.  
인류를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야.
- ③ 그는 갑작스러운 사태에 달활하고 겁이 나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이야기는 허황되고 활달한 것이었다.
- ④ 눈은 빛의 자극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뇌로 전달한다.  
지난 50년간 변천해 온 여성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사진전이 열린다.
- ⑤ 우리 선조들은 남녀 간에 식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달빛이 밝아서 멀리 있는 사람도 흐릿하게나마 분별이 가능했다.

※ 아래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루 세 번 ㉠치솔질할 것을 권장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보 기>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뺨간(退間), 횡수(回數)

6.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의 표기 원칙을 설명한 항목은? (2002학년도 21번)
- ① 제30항 1-(1)                      ② 제30항 1-(2)  
③ 제30항 2-(1)                      ④ 제30항 2-(2)  
⑤ 제30항 3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7. <보기1>과 같은 표준어 규정을 바탕으로 <보기2>를 이해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6학년도 13번)

<보기1>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오뚝이(×)→오뚝이(○), 쌍둥이(×)→쌍둥이(○) 등.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부조(扶助)	부주	~돈, ~금
사돈(查頓)	사둔	밭~, 안~
삼촌(三寸)	삼춘	외~, 처~

<보기2>

- ㉠ 그 아이는 좋아서 깡충깡충 뛰며 어쩔 줄 몰라 했다.
- ㉡ 내가 그 애와 똑같다며 쌍둥이가 아니냐고 묻곤 했다.
- ㉢ 어릴 때부터 삼촌은 나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 ① ㉠의 '깡충깡충'을 '깡충깡충' 대신 표준어로 정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겠군.
- ② ㉡의 '쌍둥이'를 보니 '막둥이'나 '횡둥이'도 예전에는 '막둥이', '횡둥이'였겠군.
- ③ ㉢의 '삼촌' 대신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원을 고려하여 '삼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군.
- ④ ㉠의 '깡충깡충'과 ㉢의 '삼촌'은 둘 다 음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겠군.
- ⑤ 대다수 언중들의 발음 습관이 달라져 굳어지면, 그 어휘들의 표준어형도 달라질 수 있겠군.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8. <보기>와 같이 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후 각 단어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9학년도 12번)

<보 기>

○ **흉내/시늉**

- ㄱ. 아이들은 장터에서 장사꾼 (**흉내**, 시늉)을/를 냈다.
- ㄴ. 아이들을 불러서 공부를 하랬더니 (**흉내**, **시늉**)만 했다.
- ㄷ. 아이가 우는 (**흉내**, **시늉**)을/를 했다.

○ **조성/조장**

- ㄷ. 장터에서부터 명절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 조장)된다.
- ㄴ. 과소비를 (조성, **조장**)하는 광고는 자제해야 한다.
- ㄹ. 사람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 **조장**)하여 이득을 보려는 장사꾼이 있다.

- ① 'ㄱ'과 'ㄷ'을 보니, '흉내'는 '남을 따라 함'을, '시늉'은 '움직임을 꾸며 함'을 뜻하네.
- ② 'ㄱ~ㄷ'을 보니, 호응하는 서술어를 통해서도 '흉내'와 '시늉'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겠어.
- ③ 내용상 'ㄱ' 뒤에 'ㄴ'이 연결된다면, 'ㄴ'의 '시늉' 앞에는 '장사꾼'이 생략되었겠네.
- ④ 'ㄷ'과 'ㄴ'을 보니, '조성'은 '만들어 이름'을, '조장'은 '더 하게 함'을 뜻하네.
- ⑤ 'ㄷ~ㄹ'을 보니, '조장'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어렵겠군.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9. <보기>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인칭 대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2009학년도 11번)

<보 기>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나는 ㉢그쪽에서 ㉣우리 아버지의 책을 맡아 주었으면 해요. 이걸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책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지요. ㉦당신에게 그 책을 맡기시려는 것을 보니 당신을 무척 믿으시는 것 같아요.

- ① ㉠과 ㉡을 비교해 보니 ㉠은 '나의'를 줄인 말이겠군.
- ②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
- ③ ㉤은 ㉠과 ㉡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야.
- ④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하는 건 어색하니까 ㉤은 적절한 대명사로 바꿔야 해.
- ⑤ ㉥은 높임법에 맞지 않으니 '자기'로 바꿔야 해.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0.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2007학년도 13번)

<보 기>

명사는 보통 모든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극비리'는 ㉠ 원칙적으로 '에' 외의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명사로, '극비리에 사업을 추진하다'처럼 사용되고, '극비리가', '극비리를', '극비리의', '극비리에게', '극비리이다'처럼 사용되지 않는다.

- 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 ② 이 관국에 내가 나한테 그럴 수는 없다.
- ③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④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 ⑤ 다들 제멋에 사는데 이러니저러니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1. <보기>를 바탕으로 접미사 '-되다'에 관한 탐구 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2007학년도 14번)

<보 기>

건설+ <b>-되다<sup>1</sup></b> →건설되다	못+ <b>-되다<sup>2</sup></b> →못되다
발견+ <b>-되다<sup>1</sup></b> →발견되다	참+ <b>-되다<sup>2</sup></b> →참되다
평가+ <b>-되다<sup>1</sup></b> →평가되다	막+ <b>-되다<sup>2</sup></b> →막되다
처리+ <b>-되다<sup>1</sup></b> →처리되다	영광+ <b>-되다<sup>2</sup></b> →영광되다
(용례)	(용례)
· 다리가 <u>건설되었다</u> .	· <u>못된</u> 장난을 치다니.
· 유물이 <u>발견되었다</u> .	· <u>영광된</u> 자리에 서다.

- ① '-되다<sup>1</sup>'은 받침이 있는 말과 없는 말 모두에 붙을 수 있구나.
- ② '-되다<sup>2</sup>'는 명사뿐 아니라 부사에도 결합하는구나.
- ③ '-되다<sup>1</sup>'이 붙으면 동사가 되고, '-되다<sup>2</sup>'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구나.
- ④ '-되다<sup>1</sup>'은 행위나 작용의 의미를 갖는 명사와 결합하지만, '-되다<sup>2</sup>'는 그렇지 않구나.
- ⑤ '-되다<sup>1</sup>'은 '이루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되다<sup>2</sup>'는 '바뀌거나 변화하다'의 의미를 더하는구나.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2. <보기>의 자료를 읽고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8학년도 12번)

<보 기>

【**맞춤법 규정**】

**제19항** 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먹이, 믿음 등.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목거리 (목이 아픈 병), 노름 등.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마중, 무덤 등.

【**맞춤법 규정 제19항 해설**】

-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나,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단어는 밝혀 적지 않는다.
-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 ① '떡이'를 '머기'로 적지 않은 것을 보니 '이'가 널리 쓰이는 접미사겠군.
- ② '목거리'와 달리 '목걸이(장신구)'는 어간의 뜻과 멀어지지 않은 예로군.
- ③ '마중'을 '맞응'으로 적지 않은 것을 보니 '응'이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겠군.
- ④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붙어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예로 '같이'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⑤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붙었지만 어간의 뜻과 멀어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예로 '마개'를 추가할 수 있겠군.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3. <보기 1>의 ㄱ~ㄴ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a~c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2010학년도 11번)

<보기1>

음성 언어에서 특정 소리를 지닌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단어 A와 B가 소리와 표기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  
 ㄴ. 단어 A와 B가 소리는 같지만 표기와 의미가 다른 경우  
 ㄷ. 단어 A가 중심 의미와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보기2>

- a. [설렁탕을 시켜 머거리]라는 말만 들어서는 설렁탕을 식혀 먹으라는 뜻인지, 주문해 먹으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 b. [그 티미 이연패를 헐따]라는 말만 들어서는 그 티미 두 번 연속해 졌다는 뜻인지, 두 번 연속해 우승했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 c. [가스미 아프다]라는 말만 들어서는 신체적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뜻인지,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 |     |   |   |
|-----|---|---|
| ㄱ   | ㄴ | ㄷ |
| ① a | b | c |
| ② a | c | b |
| ③ b | a | c |
| ④ b | c | a |
| ⑤ c | a | b |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4.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이 ㉠에 가장 가까운 것은? (2010학년도 12번)

<보 기>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즉, 청유문은 청유형 어미 '-자', '-(으)십시오' 등이 붙는 서술어의 행동을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거나 ㉠화자만 행하려는 행동을 나타낼 때에도 쓰인다.

- ① (반장이 떠드는 친구들에게) 조용히 좀 하자.
- ②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 자, 이리 와서 약 먹자.
- ③ (다툼 친구에게 화해를 청하면서) 오늘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
- ④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들이 귀찮게 말을 걸 때) 밥 좀 먹읍시다.
- ⑤ (학급회의에서 논의가 길어질 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토의합시다.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5. 다음 중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1994학년도 1차 7번)

- ① 우리가 한글과 세계의 여러 문자들을 비교해 볼 때 매우 조직적이며,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고 하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 ② 그가 오락에 몰두하는 것은 단순히 즐기 위해서보다는 현재의 괴로움을 잠시나마 잊어 보려는 행동에 불과하다.
- ③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자기의 경험을 남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남의 경험을 제삼자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 ④ 과학적 인간관과 인식론에 있어서는 인간과 인식에 관한 유일한 가정처럼 받아들여지는 데에서 우리를 낳고 있다.
- ⑤ 한 나라의 영화 정책은 당연히 자기 나라 영화의 보호와 진흥을 목적으로 그 방향에 따라 정책을 수행한다.

16. 어법이 바르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1995학년도 7번)

- ① 세상 시름에서 훨훨 벗어난 그는 이 첩첩산중에서 신선처럼 살았다.
- ② 오늘도 어김없이 바람 부는 날인데도 노인은 외출할 생각을 마음먹었다.
- ③ 그녀는 자신이 이기적인 줄을 알면서도 남에게서는 무척 듣기 싫어한다.
- ④ 회원 각자의 현재의 자기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⑤ 그의 얼굴에 나타난 감정은 누구에게도 감출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었다.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만약, 나이 드신 분께 ㉠“어르신 이는 아직 튼튼하시지요?”처럼 말을 한다면,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17. 문장이 잘못된 이유가 ㉡과 같은 것은? (1997학년도 58번)

- ① 사장님께서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셨습니다.
- ② 그 안건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습니까?
- ③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막연한 사이지요.
- ④ 할아버님께서서는 올해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⑤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싣고 하루에 다섯 번씩 운항합니다.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8.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1998학년도 7번)

- ① 사회 복지란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안락하게 사는 상태를 말한다.
- ② 우리가 인체를 탐구하는 것은 그 속에 인간을 창조한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 ③ 미술 작품은 그 표현 형식과 내용이 이해되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감상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모든 개인은 환경에 관한 정보에 대해 적절한 접근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 ⑤ 저녁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들판에서 농부 내외가 조용히 기도를 드리는 경건한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왔다.

※ 아래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말 바르게 사용합시다>라는 주제로 강좌를 개설한 이래 오늘이 그 세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식구들을 가리키는 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우리말에는 다양한 어법이 존재하며, 그것들은 매우 세밀하게 나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법들은 정확히 사용하는 일이 쉬운 것만은 아니어서 자기 도 모르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그러한 어법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사례를 한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려 드리는 전화 통화 내용을 잘 들으면서 남성 통화자의 어법이 어떤 점에서 잘못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따르릉, 따르릉)

남 : 여보세요.

여 : 여보세요. 홍길동씨 계십니까?

남 : 지금 안 계시는데요.

여 : 어디 멀리 가셨나요?

남 : 예, 지금 회의가 있어서 참석 중입니다.

여 : 회의는 언제 끝나나요?

남 :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만 30분 후에 또 회의가 계시거든요.

여 : 아유, 그럼 통화하기가 어렵겠군요.

남 :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혹시 전하실 말씀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 : 아닙니다. 다시 전화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남 : 예 알겠습니다.

19. 어법 사용의 잘못이 남성 통화자의 경우와 가장 유사한 것은?  
(2000학년도 2번)

- ① 그 가게가 어딘지 정확히 가르쳐 봐.
- ② 철수야,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시래.
- ③ 혜영아, 저녁에 서울역전 앞에서 만나자.
- ④ 어제 저녁에 한솔이네랑 외식 먹으러 갔었어.
- ⑤ 내가 너네 집으로 가는 것보다 너가 우리 집으로 와라.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 표현이 바르게 된 문장은? (2004학년도 13번)

- ①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릅니다.
- ② 우리 모두의 바램은 가족의 건강이야.
- ③ 모금한 돈이 너무 작아 죄송합니다.
- ④ 내년에는 수출량을 더 늘려야 한다.
- ⑤ 김장을 직접 담아 드십니까?



26. <보기>를 통해 감탄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2009년 6월)

<보기>

아 들: 아버지, 저도 바둑을 배워서 명인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 ㉠뉘, 명인이 된다고?  
 아 들: ㉡예, 그러니까 바둑판 하나 사 주세요.  
 아버지: ㉢글쎄, 사 줘야 되나?  
 아 들: 사 주세요, ㉣예?  
 아버지: 얼마 전에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해서 농구공을 사 줬더니 작심삼일이었잖아. 이번에도 흐지부지할 거지?  
 아 들: 그런데, ㉤응, 작심삼일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그건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 들: ㉥아니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아버지: 명인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아 들: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볼게요.

- ① ㉠은 더 이상 여러 말 할 것 없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겠군.
- ② ㉡은 긍정하여 대답하는 의미로, ㉢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군.
- ③ ㉣이 ㉠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군.
- ④ ㉤이 문장의 중간에 쓰인 것을 보면 독립어의 기능을 할 수 없겠군.
- ⑤ ㉥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의 ‘아니’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겠군.

27.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단어의 구성이 ㉠‘믿음’과 같은 것은? (2008년 9월)

<보 기>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말이다. 어근에는 여러 가지 품사의 말이 쓰일 수 있다. 가령 ‘가위질’은 접미사 ‘-질’이 명사 어근 ‘가위’에 붙은 말이고, ‘헛디디다’는 접두사 ‘헛-’이 동사 어근 ‘디디-’에, ‘새까맣다’는 접두사 ‘새-’가 형용사 어근 ‘까맣-’에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 ① 길이                      ② 기쁨                      ③ 털보
- ④ 오뚜기                    ⑤ 달리기

28.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의 선택 기준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년 9월)

<보 기>

- ㄱ. 동수는 책을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갔다.
- ㄴ. 신간 도서를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가자.
- ㄷ. 동수는 책을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예약을 했다.
- ㄹ. 영희는 그를 안 만나(러/려고/고자) 집으로 돌아갔다.
- ㅁ. 지금 공원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러/려고/\*고자)?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해당 어미 뒤가 어떤 종류의 문장인지를 고려해야 해.
- ② ㄱ과 ㄷ을 보니 해당 어미 뒤에 오는 서술어에 ‘이동’의 뜻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
- ③ ㄱ과 ㄹ을 보니 해당 어미 앞이 부정문인지를 고려해야 해.
- ④ ㄱ과 ㅁ을 보니 해당 어미가 종결 어미로도 쓰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
- ⑤ ㄷ과 ㄹ을 보니 해당 어미 앞뒤 절의 주어와 같은지를 고려해야 해.

29. <보기>는 동화의 첫 부분이다. ( )의 조사를 선택한 후, 조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8년 6월)

<보 기>

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는) 살고 있었습니다. ㉠ 할아버지(가/는)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개와 고양이를 귀여워했어요. ㉡ 그러나 돼지(를/는) 무척 싫어했습니다. ㉢ 할아버지에게(는/도)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말썽꾸러기 돼지(가/는) 다른 동물들과 달랐습니다. 개처럼 말을 잘 듣지도 않았고, 고양이처럼 애교가 많지도 않았습니까.

- ① ㉠에서는 주어 ‘할아버지’가 이야기에서 처음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해 야 해.
- ② ㉡에서는 주어 ‘할아버지’가 앞 문장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생각해 야 해.
- ③ ㉢에서는 목적어 ‘돼지’를 다른 동물과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야 해.
- ④ ㉣에서는 앞 문장에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걸 생각해 야 해.
- ⑤ ㉤에서는 앞 문장에 ‘말썽꾸러기 돼지’가 나오고, 뒤 문장에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이 소개된다는 것을 생각해 야 해.

30. <보기>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종결 어미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종결 어미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2007년 9월)

<보 기>

- 얘기를 들습니까? / 얘기를 들소?
- 의자에 앉으라. / 빨리 밥을 먹으라.
- 날씨가 덥다. / 날씨가 덥진. / 날씨가 덥넌.
- 비가 그치겠다. / 비가 그치겠니? / 비가 그치겠구나!
- 철수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 누가 가느냐가 문제다.

- ① 문장의 시제를 표시하는군.
- ② 뒤에 조사가 연결될 수도 있군.
- ③ 진술, 의문, 감탄 따위를 나타내는군.
- ④ 듣는 이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음운 환경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는군.

31. <보기>를 참고하여 사전에서 동사에 대해 기술할 때,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풀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2007년 9월)

<보 기>

○ 동사의 뜻은 그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전에서는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을 함께 기술한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에서 동사 ‘치르다’는 ‘...이 ...에게 ...을 치르다’와 같은 구조로 사용되는데, 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동사가 쓰이는 구조를 동사의 뜻풀이 앞에 제시한다.

(예문) 손님이 주인에게 밥값을 치렀다.  
 → 치르다 ㉠ (...이 ...에게 ...을) 주어야 할 돈을 내준다.

- ① (예문) 주인이 이불을 마루에 깔았다.  
 → 깔다 ㉡ (...이 ...을 ...에) 껴서 벌리다.
- ② (예문)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스쳤다.  
 → 스치다 ㉢ (...이 ...에) 세계 닿거나 마주치다.
- ③ (예문) 동생이 친구에게 가방을 맡겼다.  
 → 맡기다 ㉣ (...이 ...을) 주어서 보관하게 하다.
- ④ (예문) 형이 밥솥에서 밥을 쪄다.  
 → 쪄다 ㉤ (...이 ...에서) 어떤 것의 속에서 떠내다.
- ⑤ (예문) 그 사람만이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여겼다.  
 → 여기다 ㉥ (...이 ...을 ...으로)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

32.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 중 ‘-마는’이 들어가야 할 것은? (2007년 6월)

<보기 1>

○ ‘-마는’: 몇몇 종결어미 뒤에 붙는 보조사로서, ‘-만’으로 줄어들 수 있다.  
 ○ ‘-만은’: 보조사 ‘-만’과 ‘-은’이 결합한 형태로, 어미뿐만 아니라 체언이나 조사 뒤에도 붙는다.

<보기 2>

○ 여행을 가서( ㉠ ) 현실의 문제를 잊어버리자.  
 ○ 오늘은 그냥 간다( ㉡ ) 다음에 꼭 다시 오리라.  
 ○ 봉오리가 맺힌 가지( ㉢ ) 꺾지 않도록 조심하렴.  
 ○ 얼마나 되겠느냐( ㉣ ) 살림에 보태어 쓰려무나.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3. 문장에서 일부 문장 성분들을 생략하거나 보충하는 활동을 통해 ‘필요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6년 9월)

<보 기>

ㄱ.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예쁘게 잔다.  
 ㄴ.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ㄷ. 그 아이는 예쁘게 생겼다.  
 ㄹ. 작은 것이 아름답다.  
 ㅁ. 우리도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 ① ㄱ에는 문장 성분이 여러 개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주어와 서술어야.  
 ② ㄴ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네 개야.  
 ③ ㄷ을 보면 부사어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④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생략될 수 있지만 ㄷ처럼 필수적인 경우도 있어.  
 ⑤ ㅁ에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졌으니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를 보충해야 해.

34.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이 쓰인 예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2006년 6월)

<보 기>

접미사 ‘-답’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답<sup>1</sup>’, ‘-답<sup>2</sup>’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조건]**  
 1. ‘-답<sup>1</sup>’은 자음 뒤나 모음 뒤 모두에 결합하고, ‘-답<sup>2</sup>’는 자음 뒤에만 결합한다.  
 2. ‘-답<sup>1</sup>’은 단어에도 결합하지만 ‘그는 [싸움에서 이긴 장군]답다.’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보다 큰 단위에도 결합할 수 있고, ‘-답<sup>2</sup>’는 단어보다 큰 단위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3. ‘-답<sup>1</sup>’은 ‘~자격이나 특성 따위를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지고, ‘-답<sup>2</sup>’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진다.  
**[예]**  
 ㉠ 정답다    ㉡ 신사답다    ㉢ 도서관답다  
 ㉣ 참답다    ㉤ 아이답다

- |   |                   |                   |
|---|-------------------|-------------------|
|   | -답 <sup>1</sup> - | -답 <sup>2</sup> -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3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2006년 6월)

<보 기>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 ‘나, 우리’와 같은 1인칭, ‘너, 자네, 그대’와 같은 2인칭, ‘이분, 그분, 이이, 그이’와 같은 3인칭으로 나뉜다. ㉠ 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가. 당신은 누구십니까?(2인칭)  
 나.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3인칭)

- ① 가.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습니다.  
 나.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② 가.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나.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③ 가.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④ 가. 너희를 누가 불렀니?  
 나.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  
 ⑤ 가. 우리 먼저 갈게요.  
 나.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

[학력평가 기출문제]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36. <보기>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0년 10월)

< 보 기 >

‘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에서의 ‘잘못’과 ‘나는 음식을 잘 못 먹어서 배가 아프다.’의 ‘잘못’은 단어의 형태는 같으나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르다. 즉, 전자의 ‘잘못’은 명사이지만, 후자의 ‘잘못’은 부사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형태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 ① 오늘 아니 가겠다고 하더라.  
아니! 벌써 그곳에 도착했어?
- ② 느낀 대로 표현하고 싶었다.  
부모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
- ③ 온다던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간절히 바라면 기회는 온다.
- ④ 나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었다.  
철수는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지었다.
- 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다.  
다섯 사람이 모여서 일을 시작했다.

37. 밑줄 친 어휘가 모두 바르게 쓰인 것은? (2010년 7월)

- ① 오늘이 몇 일인지 알려 주세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 ② 우리는 서로 바빠서 오랜동안 연락하지 못했다.  
정말 오랫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즐기고 있다.
- ③ 잠자던 아이가 눈을 부비며 일어났다.  
여름에는 열무김치에 보리밥을 비벼 먹는 것이 일품이다.
- ④ 상승세를 탄 우리 팀은 상대팀을 밀어붙였다.  
그것은 지금 필요 없으니, 저 구석에 밀어부쳐 놓아라.
- ⑤ 언니는 홀몰이 아니니까, 태아를 생각해서 조심해야 해!  
내 친구는 부모형제 없는 홀몰이지만, 정말 씩씩하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주체 높임법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0년 7월)

<보 기>

ㄱ.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계신다.  
ㄴ. \*선생님은 지금 수업이 계시다.  
ㄷ. 작은아버지는 살림이 넉넉하시다.  
ㄹ. 작은아버지는 살림이 넉넉하다.  
ㄺ. 작은아버지께서는 지금 식사를 하신다.

\*는 비문법적인 문장 표시임.

- ① ㄱ과 ㄴ'를 보면 '계시다'를 사용한 어휘적 높임은 주체를 직접 높일 때에만 실현되는군.
- ② ㄷ의 '넉넉하시다'를 통해 주체와 관련 있는 '살림'을 높임으로써 '작은아버지'를 존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③ ㄷ'는 주체인 '작은아버지'에 대한 높임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군.
- ④ ㄷ의 '넉넉하시다'와 ㄹ의 '하신다'가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대상이 동일하군.
- ⑤ ㄷ과 ㄹ을 보면 경우에 따라 '께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대상에 대한 높임이 실현되는군.

39.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에 대해 탐구한 내용 중, 바르지 않은 것은? (2010년 4월)

<보기1>

○한 주체가 하는 두 가지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  
 •-고/고서: 둘 이상의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의 '나열'이나 '선후'를 나타냄.  
 •-며/면서: 둘 이상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냄.

<보기2>

ㄱ. 잔칫집에 가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다.  
 ㄴ. 친구 집에 가서 못 다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서 왔다.  
 ㄷ. 너무 아파서 줄곧 울며/울면서 왔다.  
 ㄹ. 아이들은 함께 놀고, 공부도 함께 하며, 잠도 함께 잔다.

- ① ㄱ의 '-고'는 두 동작을 나열할 경우에 사용하는군.
- ② ㄴ의 '-고서'에는 동작의 선후가 나타나는군.
- ③ ㄱ, ㄴ의 '-고/고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는군.
- ④ ㄷ은 '-며'를 쓸 자리에 '-면서'를 쓰더라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군.
- ⑤ ㄹ의 '-고'와 '-며'는 셋 이상의 동작을 나열하는 경우 모두 동시성을 나타내고 있군.

40. <보기>는 '합성명사의 의미 변화 양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2010년 4월)

<보 기>

○A+B → AB : 단순한 의미의 결합 .....㉠  
 예)논+밭 → 논밭  
 ○A+B → AX/XB : 한 쪽에만 의미 변화가 나타남 .....㉡  
 예)불+호령 → 불호령  
 ○A+B → XY : 제3의 의미가 생겨남 .....㉢  
 예)까치+밭 → 까치밭

- |        |      |      |
|--------|------|------|
| ㉠      | ㉡    | ㉢    |
| ① 칼집   | 돌부처  | 오누이  |
| ② 쥐며느리 | 오누이  | 돌부처  |
| ③ 비바람  | 칼집   | 벼락부자 |
| ④ 오누이  | 벼락부자 | 쥐며느리 |
| ⑤ 벼락부자 | 돌부처  | 비바람  |



41. <보기>의 ㉠의 경우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0년 3월)

< 보 기 >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사동(使動)이라고 하며, 사동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현된다.

(가)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입히셨다.  
(나)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입게 하셨다.

(가)에서는 '입다'에 접미사 '-히-'를 결합하여 사동을 실현하였으며, (나)에서는 '-게 하다'를 덧붙여 사동을 실현하였다. 그런데 (가)와 (나)는 의미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 (가)는 딸이 스스로 입을 수 없어서 어머니가 직접 입혀 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딸이 자신의 힘으로 색동옷을 입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후자의 뜻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

- ① 다정이는 찬물을 유리잔마다 가득 채웠다.
- ②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먹이려고 상을 차리셨다.
- ③ 아버지는 진수에게 동생을 업히고 앞서 걸으셨다.
- ④ 그녀는 이번 발표회를 위해 경미에게 발레화를 사서 신겼다.
- ⑤ 정원이는 집에 초대한 친구들에게 졸업 앨범을 보여 주었다.

42.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2009년 10월)

< 보기 1 >

● '-ㅁ/-음'에 대하여

□ 명사형 어미 :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형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동사의 명사형은 서술성이 있어 주어려 서술하며 품사가 변하지 않는다.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있다.

□ 접미사 :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로 파생시킨다. 파생된 명사는 서술성이 없으므로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없고, 관형어가 올 수 있다.

< 보기 2 >

ㄱ. 그곳에 모인 사람이 큰 **웃음**을 웃었다.  
 ㄴ. 영화는 **잠**<sup>1</sup>을 **잠**<sup>2</sup>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ㄷ.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고 나니 피로가 풀렸다.  
 ㄹ. 크게 **웃음**으로써 교실의 분위기를 밝게 바꾸었다.

- ① ㄱ의 '웃음'은 '큰'의 수식을 받으므로 '웃음'의 '-음'은 접미사이다.
- ② ㄴ의 '잠<sup>1</sup>'의 '-ㅁ'은 명사형 어미이고, '잠<sup>2</sup>'의 '-ㅁ'은 접미사이다.
- ③ ㄷ의 '잠'은 '자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 ④ ㄷ의 '잠'은 서술성이 없지만 ㄹ의 '웃음'은 서술성이 있다.
- ⑤ ㄹ의 '웃음'은 '크게'의 수식을 받으므로 '웃음'의 '-음'은 명사형 어미이다.

43. <보기>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에'와 '에서'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9년 7월)

< 보 기 >

사람들이 하나둘 공원㉠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공원에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잔디㉢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음악소리가 나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곳㉤에 모였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 ① ㉠은 '모여들다'의 목표 지점을 나타내는군.
- ② ㉡, ㉢은 상태의 지속을 뜻하는 서술어와 함께 쓰였군.
- ③ ㉣, ㉤과 달리 ㉥은 상태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사용되었군.

- ④ ㉦은 접근의 의미를, ㉧은 이탈의 의미를 나타내는군.
- ⑤ ㉨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장소를 뜻하는군.

44.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9년 4월)

< 보 기 >

□ 제 시간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 벌써 집 떠난지 삼 년이 지났다.

'-ㄴ'과 '자'는, '-ㄴ 자'와 '-ㄴ 자'의 형태를 이루어 쓰인다. 전자는 어미로 쓰이는 경우이고, 후자는 관형사형 어미 '-ㄴ'과 의존 명사 '자'로 쓰이는 경우이다. ㉠ 이처럼 어미와 의존명사가 겹으로 볼 때 형태가 같아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① □ 미리 자 들걸.  
 □ 후회할 걸 왜 그랬니?
- ② □ 집에 가서 다시 연락할게.  
 □ 학교에 가서 할 게 너무 많아.
- ③ □ 이렇게 보다니 정말 오랜만이군.  
 □ 그 친구를 십 년 만에 만났다.
- ④ □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 이 일을 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 ⑤ □ 서류를 검토한바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 평소에 느낀 바를 말해라

45. <보기>를 참고하여, 문장에서의 쓰임이 자연스러운 단어를 밑줄을 그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9년 3월)

< 보 기 >

○ 반듯하다<sup>1</sup>[-드타-]  
 ㉠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다.  
 ㉡ 생김새가 아담하고 말끔하다.

○ 번듯하다[-드타-]  
 ㉢ 큰 물체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다.  
 ㉣ 생김새가 흰하고 멀끔하다.  
 ㉤ 형편이나 위세 따위가 버젓하고 당당하다.

- ① 나는 농사만은 (반듯하게/번듯하게) 해낼 수 있다.
- ② 그 신랑은 이목구비가 (반듯하게/번듯하게) 생겼다.
- ③ 모자를 비뚤게 쓰지 말고 (반듯하게/번듯하게) 써라.
- ④ 그는 이미 주견이 (반듯한/번듯한) 성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 ⑤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이 (반듯하게/번듯하게) 자리 잡고 있다.

46. <보기>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8년 10월)

< 보 기 >

선생님 : 우리말의 부정 표현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이나 '않다'로 표현되는 '안 부정문'이고, 다른 하나는 '못'이나 '못하다'로 표현되는 '못 부정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떠한 경우에 쓰이는지 다음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발표해 보세요.

ㄱ. 장빈은 배가 고팠지만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안 했다.  
 ㄴ. 논바닥이 갈라지고 있는데도, 비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ㄷ.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많은 준비를 했다.  
 ㄹ. 우종은 100m 기록을 14초 이내로 당기고 싶지만, 아직은 달성하지 못했다.  
 ㅁ. 12시까지 고향집에 꼭 가야 하는데, 폭설이 내려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 ① ㄱ - 동작 주체의 의지가 반영될 때, '안 부정문'이 쓰일 수 있습니다.
- ② ㄴ - 부정하는 대상이 객관적인 사실일 때, '안 부정문'이 쓰일 수 있습니다.
- ③ ㄷ - 말하는 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안 부정문'이 쓰일 수 있습니다.
- ④ ㄹ - 동작 주체의 능력이 부족할 때, '못 부정문'이 쓰일 수 있습니다.
- ⑤ ㅁ - 외부의 상황이 원인일 때, '못 부정문'이 쓰일 수 있습니다.

47. <보기>를 통해 '접사'의 특징에 대해 학습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8년 7월)

< 보 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 군말, 군살, 군손질, 군침</li> <li>○ 헛- : 헛고생, 헛걸음, 헛돌다, 헛디디다</li> <li>○ -거리다 : 꿈틀거리다, 머뭇거리다, 글썽거리다</li> <li>○ -롭다 : 평화롭다, 자유롭다, 새롭다</li> </ul>
---

- ① 접미사를 붙여 동사나 형용사를 만들 수 있다.
- ② 접두사 중에는 명사와 동사에 다 붙을 수 있는 것도 있다.
- ③ 접두사는 어근의 앞에 붙어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한다.
- ④ 접두사는 자립성을 갖는 형태소에, 접미사는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에 붙는다.
- ⑤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지만,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48. <보기>에 따를 때, 밑줄 친 두 단어가 본말과 준말의 관계가 아닌 것은? (2008년 7월)

< 보 기 >

<p>본말은 본디 소리마디의 말이고, 준말은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든 말이다. 두 말을 바꾸어 사용해도 의미가 변하지 않을 때, 본말과 준말의 관계가 성립한다.</p>
--

- ① 손이 닿지 않는데, 그것 줄(조금) 주시겠어요?
- ② 말(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 ③ 두 사내(사나이)가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 ④ 너희들끼리 쌈(싸움)을 하다가 다친 모양이구나.
- ⑤ 두 소녀는 얘기(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49. ㉠ ~ ㉣ 중, <보기>에서 활용되지 않은 것은? (2008년 4월)

<p><b>발다<sup>1</sup></b> ○ 액체가 바짝 졸아서 말라붙다. ㉠</p> <p>○ 근심, 걱정 따위로 몹시 안타깝고 조마조마해지다. ㉡</p>
<p><b>발다<sup>2</sup></b> ○ 건더기와 액체가 섞인 것을 체나 거르기 장치에 따라서 액체만을 따로 받아 내다. ㉢</p>
<p><b>발다<sup>3</sup></b> ○ 시간이나 공간이 다붙어 몹시 가깝다. ㉣</p>
<p><b>발다<sup>4</sup></b> ○ 지나치게 아껴 인색하다. ㉤</p>

< 보 기 >

<p>초여름 가뭄으로 못자리에 퍼 올릴 물웅덩이도 점점 <b>발아</b> 들어가고 있었다. 모를 내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애가 <b>발고</b> 간이 타는 노릇이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김 씨는 천장이 <b>발은</b> 침침한 방을 나와 다른 날보다 이르게 눈으로 나갔다. 유례없이 풍년이 들었던 작년을 생각하면 술을 <b>발을</b> 형편조차 되지 못할 올해가 더욱 한심스러웠다.</p>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50. '언어 자료'를 활용하여 '-니다/는다'의 '쓰임 환경'을 탐구하려고 할 때, ㉠ ~ ㉣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 (2008년 4월)

언어 자료	쓰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던진다, 온다, 잔다</li> <li>• 묻다, 운다, 만든다</li> <li>• 웃으신다, 막으신다, 감으신다</li> <li>• 웃는다, 감는다, 막는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니다</b></li> <li>• (㉠) 뒤</li> <li>• '르' 받침인 동사 어간 뒤</li> <li>• (㉡) 뒤</li> <li>○ -<b>는다</b></li> <li>• '르' 받침을 제외한 (㉢) 뒤</li> </ul>

- |               |         |             |
|---------------|---------|-------------|
| ㉠             | ㉡       | ㉢           |
| ① 받침 없는 동사 어간 | 어미 '으시' | 받침 있는 동사 어간 |
| ② 받침 있는 동사 어간 | 피동사     | 받침 없는 동사 어간 |
| ③ 타동사         | 어미 '으시' | 피동사         |
| ④ 받침 없는 동사 어간 | 타동사     | 피동사         |
| ⑤ 타동사         | 피동사     | 받침 있는 동사 어간 |

51. 화자와 주체, 화자와 청자의 상하 관계에 따른 높임 표현의 사례를 <보기>와 같이 분석하였다. 바르게 분석한 것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2008년 3월)

< 보 기 >

우리말에서는 문장의 주어(주체)가 화자인 '나'보다 상위자이면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고, 청자가 화자인 '나'보다 상위자이면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습니다' 등을 사용한다.

문장 표현의 사례	⇨	화자와 주체의 관계	⇨	화자와 청자의 관계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습니다.	⇒	화자 < 주체	⇨	화자 < 청자 ... ㉠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다.	⇒	화자 > 주체	⇨	화자 ≥ 청자 ... ㉡
동생이 운동을 했습니다.	⇒	화자 > 주체	⇨	화자 < 청자 ... ㉢
동생이 운동을 했다.	⇒	화자 < 주체	⇨	화자 ≥ 청자 ... ㉣

■ '<', '>', '≥' : 화자와 주체, 화자와 청자의 상하 관계 표시. (예) 스승 > 제자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